

- 주요 뉴스: 미국 캐나다 알루미늄철강 추가 관세 철회, 캐나다는 對美 전기세 인상 중단
 -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30일 휴전 방안에 동의. 러시아의 수락이 필요
 - 미국 1월 구인건수, 전월비 증가. 다만 향후 노동수요는 점차 악화될 가능성
 - EU 재무장관회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우려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관세정책 불확실성, 경기둔화 우려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8%], 달러화 약세[-0.5%],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장중 상승했으나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1.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작년 11월 이후 최저
유로화 가치는 0.8% 상승, 엔화 가치는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증가 등을 반영하며 상승
독일은 재정지출 확대 전망 등으로 6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49.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1.9원, 0.21% 하락). 한국 CDS 상승

		3/11일	3/10일	전일대비			3/11일	3/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572.1	5,614.6	-0.76%	국채 금리 10y	미국	4.28%	4.21%	+7bp
	유럽	536.89	546.20	-1.70%		독일	2.90%	2.83%	+6bp
	중국	3,379.8	3,366.2	+0.41%		영국	4.67%	4.64%	+3bp
	일본	36,793	37,028	-0.64%	CDS 5y	한국	32bp	31bp	+1bp
	한국	2,537.6	2,570.4	-1.28%		중국	49bp	49bp	-0bp
환율	달러지수	103.44	103.90	-0.45%	위험 지표	EMBI+	-	376	-
	유로화	1.0919	1.0834	+0.78%		VIX	26.92	27.86	-3.37%
	엔화	147.78	147.27	-0.35%		WTI유	66.25	66.03	+0.33%
	위안화	7.2302	7.2600	+0.41%	원자재	구리	474.0	464.0	+2.17%
	원화	1,455.0	1,455.5	+0.03%		금	2,915.9	2,888.7	+0.9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캐나다産 알루미늄·철강 추가 관세 철회. 캐나다는 對美 전기비 인상 중단

- 백악관의 나바로 수석 무역 고문은 캐나다産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당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역갈등을 완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평가(Bloomberg)
- 이번 조치에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對美 수출용 전기에 부과했던 25%의 추가 요금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 이는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과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내려진 조치. 온타리오주의 포드 주지사는 러트닉 장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냉정한 이성을 앞세우기로 했다고 언급
- 다만 미국 정부는 당초 예고대로 동부 시간 기준 12일부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추가 하락은 큰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30일 휴전 방안에 동의. 러시아의 수락이 필요

-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즉각적인 임시 휴전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발표. 아울러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한데, 미국 측이 러시아와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도 재개할 것이며, 양국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신속하게 체결하는데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

■ 미국 1월 구인건수, 전월비 증가. 다만 향후 노동수요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

- 1월 구인건수는 774.0만건을 기록, 전월(750.8만건) 및 예상치(763.0만건) 대비 높은 수준. 이번 결과는 고용 여건이 아직 견조함을 시사. 아울러 기업의 해고 역시 전월비 3.4만건 줄어든 163.5만을 나타내 작년 6월 이후 최저치
- 다만 시장에서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의지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노동수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

■ Goldman Sachs,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JPMorgan은 증시 저가 매수 권고

- Goldman Sachs는 관세인상 영향으로 금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전(2.4%) 전망치를 하향. 한편 JPMorgan은 미국의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을 높였으나(15%→20%), 만일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 TD증권은 자동매매에 의한 주식 매도가 막바지 국면이라고 분석

■ EU 재무장관회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우려

- 역내 방위비를 대폭 늘릴 경우 국채 발행 확대를 동반하여 결국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 BlackRock도 방위비 증액에 따른 유럽 채권의 가격 하락 및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데, 최근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국채금리는 이미 상승세를 시현. 시장에서는 국채금리 상승 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평가
- 다만 ECB 정책위원인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방위비 증액이 반드시 ECB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 금리인하 속도는 방위비 증액 뿐 아니라 무역 등 종합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 중국 30년물 국채금리,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 대규모 국채 공급 등에 기인

- 3/11일 30년물 국채금리는 2.05%(+6bp)를 기록, 작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 연초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었으며, 이는 국채공급의 가파른 증가 등을 반영

■ 일본 4/4분기 GDP(확정치), 속보치 하회. 1월 실질 소비지출은 증가세 둔화

- 작년 4/4분기 GDP 증가율은 2.2%로 속보치(2.8%) 대비 낮은 수준. 세부항목 가운데 개인소비 및 민간재고 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다만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는 일본은행의 평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한편 1월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동월비 0.8% 늘어 2개월 연속 증가. 다만 식료품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번 결과는 전월(2.7%) 대비 낮은 수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1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소비자물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살렘 총재 발언
- 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국제금융시장의 반전, 미국·유럽·중국의 경제 성장 기대 변화를 반영 - Financial Times

(What is behind the dramatic shift in markets)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극적인 변화는 미국, 유럽, 중국 등 3대 경제권에 대한 투자자의 성장 전망 전환을 시사. 이는 아래의 3개 요인이 반영. 첫째,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둘째, 독일의 재정준칙 완화 움직임에 따른 유로존 경제 패러다임 전환. 셋째,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신호 등
- 이를 반영하면 2개의 상반된 시나리오를 도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유럽·중국의 경기회복 가속화로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 비관적 시나리오에는 독일의 정책 집행 지연, 중국의 구조개혁과 부양책 간 균형 실패, 미국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약화를 제시. 시장은 장기적으로 낙관적 시나리오에 무게

■ 미국의 주가 하락, 트럼프發 경기 연착륙 궤도 이탈 위기를 반영 - WSJ

(Wall Street Fears Trump Will Wreck the Soft Landing)

-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추진은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위협.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JPMorgan Chase가 경기침체 위험을 상향 조정(30%~40%)하는 등 관련 우려가 증가. 한편 행정부는 무역 불확실성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증시 하락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가 하락을 이유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아울러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연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한편 관세로 인한 단기적 인플레이션 효과로 연준의 통화정책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 미국 소비자의 부채 문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재차 부각될 우려 - WSJ

(Consumers Keep Bailing Out the Economy. Now They Might Be Maxed Out.)

- 최근 주요 대출기관 및 카드사의 주가 급락을 고려 시 가계대출 문제 주의할 필요. 가구별 인플레이션 조정 부채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했고, '24년 4/4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09년 이후 최고치(10,000달러, WalletHub). '23년 1월~'25년 1월 기간 소비에서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연체 비율 역시 2배 이상 증가(VantageScore)
- 향후 3개월 부채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비자 응답 비율도 '20년 4월 이후 최고(연준의 2월 조사). 이에 급격한 소비자 지출 감소, 대출기관 부실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

■ 미국 나스닥지수의 하락, '21년 중국 기술주 폭락과 유사 - 블룸버그

(A Nasdaq Meltdown, Like China's Big Tech in 2021?)

- Magnificent 7과 성장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100지수는 2월 최고치에서 12% 하락. 이에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21년 중국 대형 기술주 급락의 재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첫째, DeepSeek, Xiaomi, BYD 등 중국 기업의 미국 AI(특히, 소프트웨어 부문), 전기차, 휴대폰 시장 도전
- 둘째, 트럼프發 무역전쟁 및 트럼프의 경기침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언 등 미국 내 정치적 위험 프리미엄 증가. 이는 '21년 시진핑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에 대한 비난과 유사. 셋째, 증시 고평가 의견과 미국 예외주의 중단 가능성 등으로 해외 자본의 일시적인 이탈 가능성

■ 연준의 근원 인플레이션 측정, 식품 가격 포함 등으로 재고할 필요 - 블룸버그

(The Fed Should Correct an Oversight on Food Inflation)

■ 미국 주식투자자의 '트럼프 풋' 기대,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약화 - Financial Times

(Wall Street loses hope in a 'Trump put' for markets)

■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생필품 가격 상승, 저소득 가구의 생활고 심화 초래 - 블룸버그

(First Inflation, Now Tariffs: Low-Income Americans Can't Catch a 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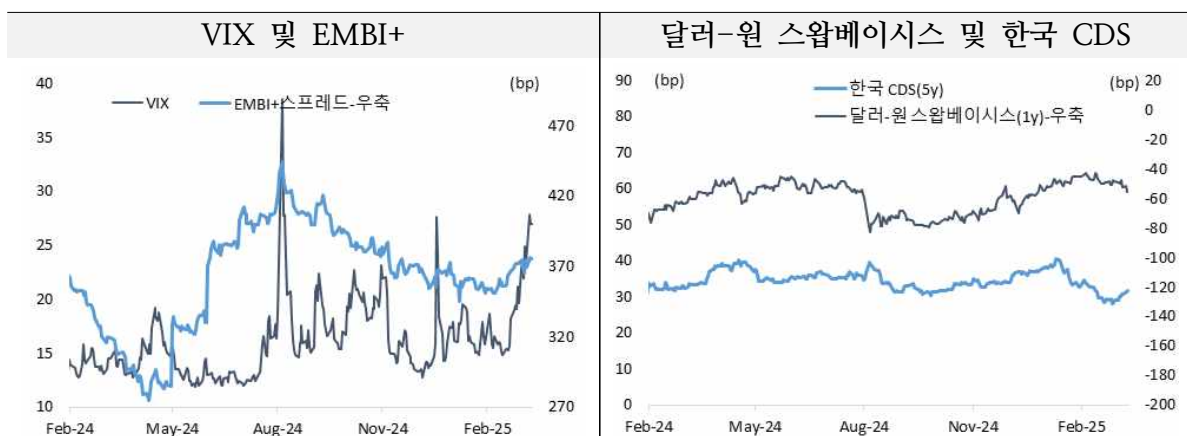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